

염료, 상위기업 생산 고속질주

수출로 돌파구 찾아 ... 중소기업은 가격하락으로 자금압박

염료산업이 전반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으나, 96년 상반기 상위기업의 생산은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7개 염료 생산 기업들의 96년 상반기 염료 매출은 총 129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 소폭 증가했으나, 일부 대기업들은 상당한 매출신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료 생산현황(1996. 상반기)			
(단위: 억원)			
회 사	1995(1~6)	1996(1~6)	증감률
대광화학	33	54	62%
대영산업	36	54	51
이화산업	177	207	17
경인양행	170	199	12
오영산업	100	112	12
동양화학	38	43	12
태흥산업	200	204	2

기업별 매출신장률은 보면, 대광화학이 96년 상반기에 54억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62% 성장했으며, 대영산업이 54억원으로 51% 성장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또 이화산업은 96년 상반기에 207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려 전년동기 대비 17% 성장했으며 경인양행 190억원, 오영산업 112억원, 동양화학 43억원으로 각각 전년동기 대비 약 1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태흥산업은 204억원의 매출로 2%의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염료 대기업들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성장한 이유는 가격이 하향 평준화된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채산성 악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반면,

대기업은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매출이 신장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대기업들은 국내 염색경기의 침체와 가격 하락으로 내수보다 수출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실제로 수출이 매출액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품목별 염료 생산실적을 보면, 분산염료가 96년 상반기에 28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1%의 큰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형광염료가 125억원으로 13.5%, 산성염료가 299억원으로 6% 성장했다.

96년 상반기 수출은 분산염료가 112억원으로 54%, 산성염료가 94억원으로 34%, 형광염료가 40억원으로 30%, 직접염료가 29억원으로 28.8% 증가해 수출이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96년 하반기에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염료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6/10/14>

